

지역 매아리

정읍시, 재선총병 긴급방제 대책회의·대응방안 모색

2017년 3월 신태인을 연정에서 처음 재선총병이 발견된 이후 연정리로부터 11.8km 떨어진 망재동 일원에서 추가로 재선총병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5일 정읍산림조합에서 긴급방제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정읍시에서는 재선총병 발생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4.11 7ha)하여 피해 지역 출입과 소나무류 이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전문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발생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긴급예찰반을 구성하여 12월 13일까지 발생지역 5km 이내 산림전체에 대한 추가 감영목이 있는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용계동에서 2본의 재선총병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제지역은 발생지역의 연계를 감안하여 2018. 3. 31일까지 소구역 모두베기와 (발생목 주변 20~30m)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방제지역 주변에는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소나무류 이동, 반출이 제한되므로 지역주민의 협조와 죽어가는 소나무?해송?잔나무?삼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에 신고(전국공통 전화 1588-3249, 정읍시 산림복지과 063-539-5762)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내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5개소 추가설치

고창군은 농경지와 생활주변에 방치된 영농폐비닐을 신속하게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에 나섰다.

정부의 장려금 지급정책과 각급 기관 및 단체, 마을별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해마다 영농폐비닐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집하시설이 부족으로 제때 수거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인 수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영농폐비닐의 안정적인 수거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에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5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는 고수면 성송면 심원면 신림면, 해리면 부안면(2) 7개소 공동집하장을 설치했으며 내년 설치 예정인 5개소를 포함하면 모두 12개 지역에 공동집하장이 들어서게 된다.

환경시설사업소 관계자는 "각 마을과 단체에서 수집한 영농폐비닐을 임시집하장에 모아두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재활용 처리할 계획"이라며 영농폐비닐 수집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본예산 사상 첫 5000억원 돌파

부안군, 내년도 일반회계 5218억원·특별회계 75억원 최종 고시

부안군 2018년 예산규모가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첫 5000억 원을 돌파했다.

부안군은 2018년 본예산 규모를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80억 원(12.5%)이 증가한 5218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5억 원(23.8%)이 증가한 390억 원으로 총 5608억 원으로 지난 15일 최종 고시했다.

부안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지난 2014년 4008억 원으로 예산 4000억 원 시대를 연지 정확히 4년만에 500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군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자체수입을 증가하려고 세력을 발굴하면서 지방교부세 증가와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열정을 기울였기 때문이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18억 원이 증가한 213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39억 원이 증가한 2193억 원이다.

2018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부안읍 도시재생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114억 원,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74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신축 34억 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42억 원 등이다.

특히 오복 공영주차장 조성 20억 원,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사업 20억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0억 원, 부안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 12억 원 등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역경기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 밖에도 군은 2017년 지방채 118

억 원을 조기 상환한 데 이어 2018년에도 나머지 지방채 44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당초 부안군은 오는 2023년까지 지방채를 매년 분할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5년을 앞당겨 2018년에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부안군이 2018년에는 '부채 제로(xero)' 지자체 대열에 확실히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4년 동안 1600억 원이 증가해 2018년에는 5000억 원이 됐다"며 "예산 규모 5000억 원 돌파는 부안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부안군을 아끼는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자 예산 1조 원 시대를 여는 벅찬 한 장을 썼다"고 말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4년 동안 1600억 원이 증가해 2018년에는 5000억 원이 됐다"며 "예산 규모 5000억 원 돌파는 부안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부안군을 아끼는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자 예산 1조 원 시대를 여는 벅찬 한 장을 썼다"고 말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4년 동안 1600억 원이 증가해 2018년에는 5000억 원이 됐다"며 "예산 규모 5000억 원 돌파는 부안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부안군을 아끼는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자 예산 1조 원 시대를 여는 벅찬 한 장을 썼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하천제방정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정읍시, 재해 예방 관심 기울인 결과 우수한 평가 받아

정읍시가 전북도 선정 2017년 하천제방정비에 대한 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시로 선정돼 15일 기관포장을 받았다

전라북도도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제방과 부속물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와 하천의 기능유지 및 재해 사전대비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하천제방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하천 제방의 호안정비와 하천시설물 정비 등 6개 분야 15개 지표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평가 했으며, 정읍시는 올해 하천제방 정비를 위해 시비 13억9천6백 만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하천시설에 대해 탐나무 오월정비와 축제정비, 수문 등의 하천시설물 정비, 퇴적물 제거, 불법행위 예방 및 지정수목제거 등 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다.

정읍시의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철저한 하천관리 및 빈틈없는 사업계획 추진결과 도내에서 하천관리를 가장 잘 하는 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정읍시의 하천관리 능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김상기 시장은 "앞으로도 하천정비를 더 철저히 하여 재해에 안전하면서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공선출하회 총회...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다져

정읍시는 통합마케팅 4년차로, 개별품목단위 경쟁력 확보를 넘어 지역단위 공동의 목표의식과 연대감 형성이 중요한 시점으로서 전체 품목농가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한 해 사업을 평가하고 이후 계획을 다함께 공유하여 더욱 발전하는 사업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4일 아크로웨딩홀에서 정읍시 공선출하회 총회를 가졌다.

이날 열린 공선출하회 총회에는 김생기 정읍시장과, 6개 지역농협 조합장을 비롯하여 전라북도농식품위 토마

토, 방울토마토, 수박, 딸기, 애호박, 감자, 배, 복숭아, 오이 9개 품목 공선출하회장과 및 공선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읍시공선출하회장은 이정진 대표의 2017년 주요성과 및 2018년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로 시작된 총회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정읍시와 지역농협, 생산자 조직이 함께 뜻을 모아 2014년 설립한 산지유통센터는 토마토, 방울토마토 선별, 상품화, 출하까지 모든 과정을 윈스톤

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대식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금년에는 집하 선별장, 과수선별기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기능을 보완한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을 완공하여 과수품목의 공동선별, 공동출하 확대에 상품성 향상 및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시설을 갖추었으며 금년 매출액 130 억원을 달성하였다.

또한 정읍시 산지유통센터는 단기간 실적 증가를 우수로 올해 농협중앙회 회장 표창 경제자유 대표이사 표창 등 광범위한 성장을 이루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성북교회가 18일 고창읍에 쌀 170포를 기탁했다.

고창 곳곳 사랑나눔 손길 잇따라

고창군 곳곳에 연말을 맞아 소의 따뜻한 손길 잇따라

3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시설에 매년 성금과 물품을 전해온 고창 성북교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신도들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백미 20kg 170포(700만원 상당)를 싣고 18일 고창읍사무소를 방문해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 기탁된 쌀은 고창읍 관내 경로당 73개소와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97세대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원될 계획이다.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농장(대표자 주재만)도 같은 날 직접 생산한 쌀(10kg·20포)과 유기농쌀과자(3EA·80박스)를 부안면에 기탁했다.

질마재농장은 청정지역 고창군 부안면에서 직접 지은 유기농 농

산물로 유기농쌀, 유기농쌀과자 등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수익금의 1%를 소외된 이웃을 위해 굿데이비스, 부안면 등에 기탁하고 있다.

부안면은 기탁받은 물품을 추운 날씨에 마음까지 따뜻하게 열어주는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아동들, 노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고창군 신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같은 날 동절기 대비 저소득 계층과 복지사각 지대 10세대를 발굴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방한용품(이불)을 지원했다.

협의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관협력배분 사업비 방한용품(이불) 지원 특별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들이 대상자 가구를 발굴하고 방문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의회사무과 김양석 의정팀장 정년퇴임

한 평생을 몸담았던 부안군의회사무과 김양석(사민) 의정팀장이 32년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김양석 의정팀장은 최근 부안군의회의 의원과 동료직원, 가족 등이 함께 한 퇴임식에서 축하와 감사인사를 전하며 아쉬운 석별의 정을 함께 나눴다.

이날 부안군의회의 의원 사무과 직원을 대표해 추사와 꽃다발을 전달한 오세용 의장은 "40년 넘는 세월을 군민을 위해 헌신한 김양석 팀장의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양석 팀장은 "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의원 및 선

후배 동료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그간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군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됐길 바란다"고 퇴임사를 전했다.

김양석 팀장은 지난 1975년 부안군 농촌지도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업과, 사회진흥과, 기획감사실, 도시경제과, 자치행정과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공직생활과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전북도지사 표창과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다수 수상했다.

부안군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고 효과적인 의회 홍보활동을 추진해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했으며 평소 성실한을 바탕으로 의원 및 동료직원에게 귀감이 돼 지방자치발전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several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maller images of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character.